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 구원의 확신

벧전1:3-9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화된다.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 종북 좌익 사회주의, 적그리스도의 세상
이런 세상, 사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했는가?

지금 6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한탄

특히 어린 손녀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 기도와 한숨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로마서 1장이 성취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21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오늘 < >,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령의 열매(5:22)
매일 기쁘게 살기는 어렵지만 종종 우리 삶에서는 기쁜 일이 생긴다.

대학, 제대, 결혼, 출산, 손자 손녀 출생, 큰 병에서 회복, 생일, 환갑, 칠순

운전면허, 자동차, 해외여행(하와이, 디즈니랜드, 이집트 이스라엘 여행)

이 모든 것, 매우 중요하고 기쁜 일이다. 그런데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일까?

벧전1:3-9는 감격스러운 메시지이다. 1-2절은 다음에 강해, 여러분에게 읽어 보라고 보냈다.

1. 6절 너희가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2. 8절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한다.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1절 널리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의 터키, 한국의 7배 면적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다수의 유대인들(자기 민족에게 따돌림
을 받는 사람들),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곳곳에 산재한 이교도
문화로 인해 영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

4:12-13,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13)

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6),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이(8) 있기 때문이다. 영광은 하늘에만 있다. 하늘의 기쁨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구원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8)이 있는가?

벧전1:6, 8절이 나를 묘사하는 말씀인가?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가?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표현 눅6:22-23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땅이 아니라 하늘, 거기에서의 보상

골3:1-2 애착

주님이 주시는 보상,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매일 화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환경에 상관없이

살전5:16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지금 세상이 쪼개지고 붕괴되어도 확실하다.

이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늘의 기쁨,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구원으로 인한 기쁨

눅1:46-48, 마리아의 기쁨, 우리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자로
인해 기뻐한다.

요즘 구원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요17:3,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인생에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이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

토마스 브룩스: 구원의 확신

맥아더의 소개, 17세기 청교도, <땅에서의 천국>(Heaven on Earth),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구원을 받은 뒤 구원의 확신을 가계 되면 두 개의 천국을 경험한다.

1. 앞으로 다가올 천국, 2.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영원한 복락에 대해 온전히 확신하라!”

“어떤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구원) 그 사람의 처지는 행복하고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런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그 사람의 삶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구원의 확신). 어떤 사람이 지금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현재 이런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스스로의 양심 안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감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구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좌에 올라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비참하다. 이왕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것이 좋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천박한 자들, 무식한 자들, 하나님을 알보는 자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봐야 구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례: 故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는 말을 했다.

표현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나 이 개념을 믿음에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남긴 김 추기경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죽어 봐야 알죠."라고 했다. 아무리 깊은 믿음을 추구해도 결국은 자기 삶을 통한 행위로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죽어 봐야 안다...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다... 이처럼 구원이 내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겸손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롬10:9-10, 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1: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엡2: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요일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천주교인들처럼 행위 구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구원에 묶여 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 주는 두 가지 사실, 8절

1. 그분을 믿는 것(후반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것, 부활, 재림, 요3:16을 믿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러나 모두가 믿지는 않는다. 고전2, 본성에 속한 사람,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영광, 기쁨

2. 그분을 사랑하는 것(전반부), 그분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을 사랑한다.

3. 그 결과 기쁨으로 기뻐한다(후반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

눈물 흘리고 하는 감성적인 것 말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그분만, 지정의로

그분의 진리만, 성경만

기쁨의 근원

8절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9절이 기쁨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다.

혼이란 사람 전체, 믿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 어떻게 아는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매일 생글생글 아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후6:10). 나침반 바늘처럼

(*)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감소한다. 시51:12, 구원의 기쁨 감소

구원받은 성도의 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이 땅의 축복 No!(엡1:3),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런 것 약속하지 않는다.

기복, 번영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3절: 구원의 원천, 아버지 하나님, 방도: 예수 그리스도

4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

5절: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구원받은 뒤 나타나는 효과: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제 마음 놓고 가서 자도 된다.

결론

그리스도인: 성경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만을 고 사랑한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지금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